

“미래의 주인으로서 참부모님의 꿈 이뤄드리는 성화의 젊은이가 되어야”

천력 7월 16일(양 8,29)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 참부모님 말씀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후 가진 단체기념촬영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이 천력 7월 16일(양 8,29) 오후 5시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통일가의 주요 지도자와 전 세계에서 온 청년학생 및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부모님의 말씀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모시는 유엔 되어야

여러분은 70여 개국에서 모인 성화의 젊은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실질적인 미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님 성화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 도처에서 통일가의 식구들이 많이 회개하고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금년은 한국이 독립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이며 또한 유엔이 창설된 지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하늘은 유엔을 창설해 이 나라와 참부모를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전체적인 하늘 섭리를 모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한 방향으로 가려 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금년 유럽을 순회하면서 유

엔(사무국)에 들어서 ‘유엔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시는 유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통해 인류 구하고자 하셨던 아버님

미국은 1970년대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세계의 대표국인 미국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놓지 않으면 세계평화와 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한국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지만 세계와 인류를 생각하시어 미국에 건너가셔서 40년 동안 많은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세계의 중심국이라는 자부심과 개인주의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2백 년 동안 수고하며 길러 나온 미국은 가정파탄, 청소년문제, 마약문제, 사상문제로 더 이상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향해 아버님께서는 ‘의사요, 소방수로 왔다’고 말씀하시며 50개주 순회강연을 하시며 상류층, 정계, 재계 인사들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지식층들이 아버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지 세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적

들은 좁은 생각으로 아버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참부모님이셨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6천년 성경역사와 탕감의 원칙

섭리 역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참으로 긴박하게 흘러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부모가 되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잘 성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의 섭리역사는 탕감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2천년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 하늘은 4천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가 성립될 때까지 길러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4천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애를 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유대교, 마리아까지 예수님께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탕감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2면에서 계속)

참부모님 닮은 사랑의 화신체 되어야

우리는 참부모를 모십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탄생된 2세권인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성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3천5백여 명의 성화 청년들은 참부모님을 닮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받으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자세, 나눔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퓨어 워터(pure water,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은 정지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며 많은 생명체들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참부모님 권내에서는 흙탕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맑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인류가 참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참부모이시기에 국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오셨습니다. 인류의 식량문제와 지구의 온난화 문제 등을 누구보다도 염려하시고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참아버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성취해 드리고 인류의 한을 풀어주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오셨습니다.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화의 젊은이

지금 전 세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큰 나라가 더 가지려고 전쟁을 준비하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칼을 녹여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불필요한 데에 돈을 낭비하고 있고,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질서는 자연을 파괴하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필요한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어떤 면에서 대가가 될 것이다. 대학자가 될 것이다. 크게 유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화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전 품고 나라와 세계 이끄는 미래 지도자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은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의 사회로 참부모님 입장, 경배, 꽃다발 봉정, 선학합창단의 축하, 희망봉헌, 참부모님 말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다나카 토미히로 일본부회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 기념촬영, 참부모님 퇴장, 유경석 한국회장과 송용천 일본 총회장의 격려사,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의 Vision 2020 청년학생 아젠다 발표, 개인목표 봉헌, 통성기도,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경석 한국회장은 격려사에서 "여기에 모인 3천5백 명의 청년학생들이 '천일국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의하고 하나 된다면 미래의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다.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성화청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기슴 깊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참부모님을 닮은 사랑의 화신체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할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용천 일본총회장은 "참아버님께서 평생 청년의 삶을 사셨다. 누구보다 큰 꿈으로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하셨다. 이러한 참아버님과 같은 삶을 지금 참어머님께서 살고 계신다. 참부모님을 만난 여러분은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국가와 세계를 새롭게 하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한 청년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은 정체성, 한 형제, 교육, 전도, 참가정운동, 남북통일, 세계평화, 환경보호 등 Vision 2020 청년학생 아젠다를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은 개인별 Vision 2020 목표를 적어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1. 꽃다발을 봉정 받으시는 참어머님
2. 통일가 청년학생들의 미래봉헌과 함께 기념촬영하시는 참어머님
3. 세계 통일가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참어머님
4.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며 억만세 삼창을 하는 장면

세계평화터널재단, 천주성화 3주년 맞아 피스로드 비전 세상에 전해

피스로드 탐방·포럼·세미나·심포지엄, 한국·미국·중국 등지에서 진행

세계평화터널재단(이사장 최윤기)은 창설자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며 '국제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넘어 화해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취지로 '피스로드(Peace Road)' 탐방·포럼·세미나·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피스로드(Peace Road)는 참부모님의 유업을 상속한 범세계적 평화운동이다.

피스로드, 참부모님 유업 상속 위한 범세계적 평화운동

세계평화터널재단이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기획한 첫 번째 기념행사인 '피스로드 탐방'이 천력 4월 10일부터 17일까지(양 5.27~6.3) 8일 동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정승 전 농림식품부 차관,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엄익동 KCC건설 고문 등 28명의 국내 지도자들이 탐방단의 일원으로 참부모님께서 걸으신 평화의 길을 순례했다.

탐방단을 이끈 김병수 세계평화터널재단 부이사장은 가는 곳마다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국내 지도자들을 이끌었다. 탐방 3일째인 천력 4월 13일(양 5.30), 일행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1000일 기념식'에 참석하여 참어머님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또한 행사를 마친 뒤에는 '2015피스로드 세계출발식'에 동참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은 "평화의 비전을 가진 단체나 기관은 많지만, 세계평화터널재단처럼 실천하는 곳은 별로 없다."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념행사인 '피스로드 포럼'은 천력 5월 2일(양 6.17)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80여 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피스로드포럼은 참부모님께서 주창하신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일해저터널과 베링해협 터널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국내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참부모님의 평화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시작됐다.

15회째를 맞은 이날 포럼에 특별히 초청된 이용섭 전 교통부 장관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며 "우리 스스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은 피스로드에 담긴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과 비전에 공감하며 힘을 모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 라스베이거스 국제평화교육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피스로드 탐방단
2. 제1회 피스로드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계 지도자들
3. 제1회 피스로드 심포지엄 전경



참부모님 평화사상과 비전 실현 운동 지속적 전개할 것

세계평화터널재단 산하 피스로드아카데미 주최 '2015년 대학생 피스로드 탐방' 행사가 천력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양 7.7~11) 4박5일간 한국 학생과 일본 유학생 등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일 대학생들은 동북아 미래를 생각하며 중국 다롄에서 한반도 북서단 단둥을 거쳐 북동단 투먼에 이르는 1460km의 대장정을 순례했다

서울대, 연세대, 선문대 등 국내 2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학생과 일본 유학생들은 천력 5월 11일(양 7.7) 항공편으로 중국 대련 국제공항에 도착해 안중근 기념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탐방 길에 올랐다. 탐방단은 동북 3성의 항일투쟁지와 조선족 유적지를 살펴보고, 중간 지점에서 백두산 서파코스를 택해 도보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올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고보리 쿠니카 학생은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 생각했다."며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세계평화터널재단과 새누리당 통일위원장인 이강후 의원실과 공동 주관한 '2015 제1회 피스로드 심포지엄'이 천력 6월 21일(양 8.5)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분단 70년,

남북갈등 피스로드(Peace Road)로 본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윤기 터널재단 이사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각계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강후 국회의원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최윤기 이사장은 기념식 개회사에서 "우리는 경제를 재건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핵무기 개발보다 남북협력이 더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한반도중단철도 연결은 한민족 공생공영의 길이며, 피스로드 구축의 중심축이자 평화통일의 막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는 정태익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센터 소장이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명채 세종연구원 부원장이 '한국의 생존전략-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계평화터널재단은 '피스로드'라는 주제로 참부모님의 평화사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세계평화터널재단)

세계평화청년연합 참부모님의 통일 비전과 순결한 참가정의 메시지 전파

천주성화 3주년 맞아 청소년, 청년대학생,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념사업 진행



세계평화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참부모님의 통일 비전과 순결한 참가정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2015 가화만사성 캠페인'과 '2015 청소년가상통일발표대회' 등의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통일부의 '2015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제1회 통일사진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외치는 것은 참부모님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기에 활동을 하며 기뻐다. 캠페인에 참여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5 청소년가상통일발표대회 및 제1회 통일사진공모전 개최

2015 청소년가상통일발표대회가 '2015 전국성화캠프' 기간 중이던 천력 6월 24일(양 8.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청년연합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세계잼버리수련장 강당에서 개최됐다. 탈북청소년 권은별 씨의 강연을 시작으로 예선을 통해 선발된 5명의 성화학생들이 가상통일발표경연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상필 청년연합 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성화학생들이 이렇게 남북통일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고 총평하고, "앞으로 성화학생들이 더욱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신념을 갖고 남북통일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여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대회에 참가한 5개팀 6명의 참가자들은 '통일로 새로 쓰는 한반도'(조예진, 홍주영), '문화로 소통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이영정), '사회문화로 본 남북통일의 미래'(이소정), '참사랑으로 하나 될 그날까지'(유범무), '대박으로 이어질 우리의 통일'(김혜라)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예진, 홍주영 학생은 각각 남한과 북한의 복장을 입고 나서 눈길을 끌었고,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통일 후의 문제를 진단하고, 북한의 경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봉사활동 등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라훈일 한국CARP 국장은 '남북통일과 성화학생의 자세'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참아버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섭리사적 여정을 설명하고,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청년연합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통일사진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공모전은 '2015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상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통일부장관상의 특전이 주어지며 총 20점의 작품 시상과 함께 총 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세계평화청년연합)

'2015 가화만사성 캠페인', 연인원 1000여 명 참석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순결한 참가정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한 '2015 가화만사성 캠페인'이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가정'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성화학생, CARP 원자, 일반 시민 등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1차 캠페인은 천력 6월 3일(양 7.18) 구리·남양주·가평 지역의 성화학생 49명을 대상으로 구리 장자호수공원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 앞서 이정현 팀장은 '올바른 성가치관과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성화학생들은 사랑의 팔찌 만들기, 솜사탕, 가족 설문 패널, 즉석카메라 촬영, 가족 엽서 쓰기, 가족 풍선 나누기, 행복한 가족 서명, 러블리 물타투 등 여덟 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한 성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제2차 캠페인은 천력 6월 10일(양 7.25) 여수·광양 지역 성화학생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진행됐다. 1차 캠페인과 동일하게 8가지 체험부스를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캠페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날 비가 예보되어 있었지만 하늘의 축복 속에 어느 때보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성화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해져 350여 명의 여수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제3차 캠페인은 천력 6월 18일(양 8.2) CARP 원자 15명을 중심으로 호창공원 및 숙명여대 인근 지역에서 실시했다. 3차 캠페인에서는 부스 프로그램보다는 '가족 설문 패널'을 들고 거리로 나가 '건강한 성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캠페인에 참가한 신예주 성화학생은 "물티슈와 함께 '가화만사성'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캠페인을 진행할수록 재미있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참석 소감을 전했다.

진셋별 CARP원자는 "건강한 사랑,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화만사성'을



1. 가족설문패널을 진행하고 있는 성화학생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2. 올바른 성가치관과 행복한 가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현 팀장
3. 2015 가화만사성제2차 캠페인 성료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



참부모님의 섭리적 발자취;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신 일본(하편)



말씀을 품고 세계로 나가 선교기반 확대, 섭리발전의 큰 축 담당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이하여 본지는 어머니 나라 일본이 하나님 해방과 인류구원을 위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부모님을 섬기며 세계섭리를 위해 공헌한 역사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집 3호 하편에서는 말씀을 품고 세계로 나가 선교의 기반을 확대하며 섭리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신 일본교회의 역사를 담았다.

말씀을 품고 세계로, 일본 선교의 선봉에 서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성장한 통일교회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나 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 통일교회 발전에 일본 식구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의 초창기 교회식구들은 대부분 일본 식구에 의해 전도되거나 소개를 받아 축복결혼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일본에서 파견된 식구들이 선교활동 지원에 나서고 전도활동에 투입되어 교회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다. 신앙의 조국인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인과 축복을 받은 수천 명에 이르는 일본 부인들이 교회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실제로 한국의 지방교회를 방문해 보면 오히려 현지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일본 여성들이 많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한국 교회의 운영과 섭리적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을 세계 구원섭리의 '어머니 국가'로 택하시고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여러분은 최후에 세계 만민을 품고 다시 낳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해와 국가의 사명을 가진 국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일본 식구들의 세계적 공헌에 대한 사명과 그 업적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셨다.

본격적인 해외선교의 시작, "그 나라의 조상이 되어라"

1975년은 제3차 7년 노정의 첫해로 세계 섭리 출발의 해였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수국가였지만 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에서 각 1명씩 3명을 한 조로 세계 120개국으로 파송하여 세계선교를 책임지게 하셨다. 참아버님께서서는 '제3차 7년 노정의 의의'를 설명하시면서 세계선교의 필요성 강조하셨으며, 선교사들은 '1975년 4월말까지 책임을 맡은 임지국가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본선교사의 고투가 시작됐다. 당초에는 막연하게 '5년 정도'로 선교 기간을 예상했지만, 이들 중에는 길게는 20년 이상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선교할

동을 위해 체류하게 된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순교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염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1980년 12월 18일, 사사모토 선교사가 선교국 탄자니아에서 순교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사사모토를 '순교자'로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그를 위해 추모예배를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당시 미국에서 참가정을 모시던 하마사카 미호코는 1975년의 어느 날, 참아버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린 채로 밤잠을 이룬 적이 많습니다. 지구의 저 반대편에서 선생님께서 보내는 식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만 몰래 보고를 올린 후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 국가에 전도를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아버님의 등이 떨렸다고 전한다. 선교현장에서 생사를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시며 깊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다.

국가메시아와 여성선교사 파송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냉전이 종결된 후 세계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가 심화되면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분쟁은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민족과 종교, 인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변화된 세계정세에 맞추어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은 여성운동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1992년 4월, 참부모님께서서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해 평화운동의 중심에 서게 하셨다. 여성연합 창설 2년 후인 1994년부터 전문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진 일본 여성 1,600명이 세계 160개국에 10명씩 파송됐다.

1,600명의 일본 여성들은 파송된 국가에서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 등을 통해 착실히 현지에 정착해 나갔다. 참아버님께서서는 보다 본격적인 세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국가 메시아'에 의한 섭리였다.

국가 메시아 섭리는 임지국가의 정세나 현지 통일운동의 기반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며 진전되어 나갔다. 1990년대 후반 참아버님의 섭리관은 분명 세계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 이에 국가 메시아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세계로 연이어 파견됐다. 최초의 목적지는 남미였다. 참아버님께서서는 1996년 11월 4,200명의 일본 여성을 선교사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중남미 33개국으로 보내셨다. (6면에 계속)



1. 가선교사 수련회에서의 기도회 장면(1975년 4월, 미우라반도)
2. 이슬람 국가 수단에서 새해를 맞은 선교사와 현지 식구들
3. 참부모님 상(해외선교 21년 공로상)을 수여받은 선교사들(1996년 1월 1일, 미국 뉴욕)

종교화합운동과 일본 선교사들의 공헌

참아버님의 섭리관에 의하면 미국은 2,000년의 신약 기독교를 대표한 나라로서 성약의 재림 섭리를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다. 세계 구원을 위해 섭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축이 되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강력한 교회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0년 4월 일본 내 대학졸업의 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한국 청평수련원에서 개최된 21일 수련회에 두 차례로 나뉘어 참석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선발된 500명은 미국 선교에 투입되었다.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참아버님께서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임지 추첨이 이루어졌고, 미국 50개 주에 각자의 임지가 결정됐다.

일본 여성선교사들의 계속된 노고와 노력은 드디어 결실 맺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는 초종교 및 초종파 운동 프로젝트가 실시된 것이다. 미국 성직자 방한단이 부산 범넛골을 순례했을 때 받은 계시를 계기로 2000년 5월 미국 성직자지도자회의(ACLIC)가 설립됐다. 이를 통해 신약 섭리와 성약 섭리가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해인 2001년 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참부모님의 '미국 50개 주 순회강연'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속에서 진행됐다. 당시 인연된 기독교 성직자들은 '우리들은 일어선다(We will stand!)'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가운데 '미국이 하나

님께서 바라시는 섭리 국가로 다시 서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순회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토대 위에 같은 해 5월 27일 '60쌍 초종파 성직자 축복결혼식'이 거행되어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등 각양각색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성직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축복결혼의 맹세를 다짐했다. 또한 2002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 D.C. 교외에 있는 호텔에서 '14만4천 쌍 초종교 초국가 성직자 축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세계의 변방을 '승리적 성지'로

세계 각지에서 국가복귀를 위해 활동하던 일본인 국가메시아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99년 7월 하순이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일본인 국가 메시아는 전원 파라과이의 올림포에 집합해서 8월 1일부터 40일 특별 수련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수련회의 정식 명칭은 '판타날 개발 특별 40일 수련회'였다. 수련회 기간 중 참아버님께서서는 자주 수련생들을 방문해서 판타날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제1진이 레다에 들어간 것은 1999년 10월이다. 레다 개발에 대해 참아버님은 구체적으로 ① 식수, ② 양식(養殖), ③ 관광을 주요 주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셨다. 참아버님께서서는 레다 개발을 '일본의 탕감복귀'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 메시아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결의하도록 촉구했다.

파라과이의 오지이자 벽지였던 레다는 점차 인간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청년 자원 봉사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년 8월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레다에 와서 10~20명 규모로 한 팀을 짜서 인디헤나 마을을 방문하고, 그곳 어린이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교육지원·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참아버님께서서는 판타날의 비전과 희망, 그 위대함,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실천방안 등을 강조하셨다. 참아버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온 국가 메시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가에서도 포기하고 내버려 둔 오지이자 벽지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분명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승리적 성지'의 기초 위에 14년간 한결같이 투입된 정성과 노력으로 그 기반이 서서히 다져지고 있다.

세계평화의 지름길은 국제축복결혼

참아버님께서 추진해 오신 국제 축복결혼식은 '이상가정을 통한 평화세계의 실현'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참아버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세계평화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국가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그것이 바로 세계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의 책임이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251페이지)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가, 다른 문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평화스러운 세계를 실현하는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두 집안이 인연을 맺는 것이며 나아가 두 종족, 두 나라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역사 속에서 맺힌 한을 극복하며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하면 한국과 일본이 화합하는 것이고 백인이 흑인과 결혼하면 백인종과 흑인종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낳는 아이들은 두 민족의 피를 동시에 물려받은 화합의 인간이며 백인과 흑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종의 시원이 됩니다. 이렇게 몇 세대만 지나면 국가나 인종간의 분열이나 반목이 없어지고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51페이지)

이러한 참아버님의 가정관과 평화관, 세계평화의 비전은 근본사상인 '통일원리'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참아버님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축복결혼식에 일본의 교회식구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오직 국제 축복결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중심으로 그 실천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 사람과 만나 축복결혼을 하고 남편의 국가에 정착하여 참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모델적인 국제축복가정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출처: 「참부모님 섭리의 발자취; 일본」〉



1990년대 중반 그라나다에서 활동하는 국가메시아, 선교사, 평화대사



가정연합 일본-중남미 여성지도자 자매결연(1996.11.24)



레다 개척을 시작하기 전 현지 시찰을 하신 참부모님(1999년 9월 21일)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레다 청년자원봉사대